10.15686/fkl.2026..67.222

읽기의 정치성, 젠더적 독서-비평

-주디스 페털리, 임유진 역, 『저항하는 독자: 미국 소설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접근』, 북튜브, 2026.

정우주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차

1 남성 주체화된 독자와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
2 ‘다시-보기’의 수행과 균열되는 정전
3 대화로의 개방과 시의적 창조성
4 광기의 명명과 마녀들의 관계 맺기: 『마녀의 독서, 광녀의 춤』

1 남성 주체화된 독자와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

주디스 페털리의『저항하는 독자』는 여성 독자로 하여금 텍스트의 '동일시' 요구에 저항하고 '다시 읽기'를 통해 텍스트와 새롭게 '관계 맺기'를 제안하는 책이다. 우선 동일시 요구란 이 책에서 '강제적 남성 주체화(immascula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페털리에 따르면 '남성적인 것'을 곧 '미국적인 것' 내지 '인간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보편성을 남성의 용어로 정의해 온 미국 문학을 읽는 과정에서 여성 독자는 필연적으로 "자신이 배제되는 경험에 참여하도록 강제"[1]된다. 말하자면 여성은 남성중심적으로 기획된 텍스트에 의해 남성처럼 생각하고 남성의 시각을 내면화하도록 요청받지만, 결국 자신의 경험으로부터는 끊임없이 분리 및 소외된다는 점에서 '무력함'을 느끼며 '분열된' 자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때 페털리는 남성 주체화 현상을 작동시키는 원칙으로 '여성혐오'를 지목한다.

위와 같은 특징은 1장의「립 밴 윙클」에 대한 분석에서 잘 드러난다. 미국 단편소설의 시초격인 워싱턴 어빙의 이 작품은 주인공 립을 '좋은 사람(nice guys)'의 원형으로서 즐거움과 놀이, 꿈꾸는 상태와 여유를 추구하는 '할 일 없는' 최고선(summum bonum)의 자리에 위치시키는 반면, 그의 아내 밴 윙클 부인은 노동과 실용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종의 '악당'으로서 립이 거부하는 '초자아의 명령'이자 정부 내지 정치인들과 연속성을 이루는 '문명의 대리인'으로 상정된다.(48-52쪽) 이에 립은 "아내 앞에서 기죽고 움츠러드는 남성"(64쪽)의 모습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페털리는 이러한 '미국적 상상력'에 무리 없이 동일시되는 남성 독자와 달리, 여성 독자의 경우 모순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여성은 립에게뿐만 아니라 밴 윙클 부인에게도 자신을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밴 윙클 부인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메커니즘"(58쪽)이기 때문이다.

즉 해당 소설은 전통적으로 성인 남성에게 기대되는 특징과 권위적 역할을

1 주디스 페털리, 임유진 역,『저항하는 독자: 미국 소설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접근』, 북튜브, 2026, 16쪽. 이하 본문 인용은 괄호 안 쪽수만 밝혀 표기한다.

립의 아내에게 부여하고(50, 59쪽), 영원한 소년기의 환상을 꿈꾸는 립에게는 암묵적으로 여성성의 패턴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위장"하며 적대감을 "여성에게 전가"한다.(54, 64쪽) 따라서 페털리가 보기에 앞서 언급한 '사나운 아내에게 주눅 드는 남편'의 모습은 '그런 체'하는 연기에 불과하다. 더욱이 어빙의 소설이 가장 문제적인 이유는 밴 윙클 부인을 '바가지 긁는 아내'라는 전형적인 고정관념으로 환원하는 것에 더해, 여성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와중 그럼에도 "자신의 성별에 대한 정의를 강제로 실행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58, 60쪽) 구체적으로 어빙이 그려내는 밴 윙클 부인과 마을 여자들 간 '여적여' 구도는 여성으로서 립의 편을 들고 모든 책임을 아내 탓으로 돌리는 일에 동참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이로써 「립 밴 윙클」을 읽는 여성 독자는 "밴 윙클 부인을 비웃으며 그녀가 '여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자신이 억압자이면서 동시에 억압받는 존재임을, 궁극적으로는 그 어느 쪽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요구받는다."(60쪽)

그리하여 이러한 분열과 고립의 교착적 상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페털리는 궁극적으로 '다시-보기(re-vision)'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에이드리언 리치의 개념을 빌려온 이 주장은 텍스트를 다시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이 단지 학술적·문화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를 넘어서는 "생존의 행위"임을 다시금 역설한다. 이른바 ""미국 소설의 남성적인 황야"에 갇힌 여성 독자를 위한 자기방어 생존 매뉴얼"(9쪽)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리치를 경유하여 읽기의 행위를 곧 존재론적 조건과 결부 짓는 페털리의 사유는 책 전반에 걸쳐 두드러지게 현실을 '반영'하는 구성물로서 문학을 인식하는 특징과도 공명한다. 페털리는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의 자아 정체성)에게 영향을 미친다'(9, 17쪽)는 전제에 더해 '문화를 변화시키면 그것을 체현하는 문학이 바뀔 수 있다'(29쪽)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물론, 텍스트를 '다시-보는' 시도를 통해 삶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쌍방향의 행위 역시 가능하다.(9-10쪽)[2]

2 관련하여 백지은의 다음과 같은 논의는 유의미한 참조점이 된다. "일상에서 또는 광장에서 (…) 겪었던 순간들이 '문학 텍스트'를 읽는 경험과 근본적으로 다른 건 무엇일까? 아니, 이 둘이 절대적으로 다른 일일 수가 있을까? **문학을 현실의 충실한 반영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다. 현실이 문학보다 더 강력하다는 얘기도 아니다. 이것은 오직 '읽기'에 관한 이야**

이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특히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의 흐름을 통과하며 '문학과 현실(삶)의 관계'를 새롭게 성찰하려는 논의들이 제출되었던 한국문학장의 맥락을 상기시키는 지점이기도 하다. 당시 "문학과 삶이 이전과는 달리 훨씬 더 직접적으로 연동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3]에 주목하며 "'(문학)텍스트'를 읽는 것과 현실을, 삶을, 세상을 읽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4]는 주장들이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쏟아져 나왔음을 기억한다. 이때 표절 사태와 '#문단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등을 거치며 문학계 전반의 권위와 윤리성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고, 더 이상 문학이 현실과는 분리된 자율적·미학적 재현물이라는 생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재편된 문학장의 구조가 다름 아닌 '독자' 주체 중심으로의 전환을 맞이했다는 사실은, 문학의 탈정치적 태도, 다시 말해 "보편적 진리를 말한다는 허위의식"(15쪽)을 비판하며 "문학은 정치적이다"라는 말로 서론을 여는 주디스 페털리의 '독자론'을 한층 더 가까이 감각하게끔 한다.

2 '다시-보기'의 수행과 균열되는 정전

> 여성들이 문학 작품을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다시 써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작품들이 반영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명명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문학 비평을 **폐쇄적인 대화에서 적극적인 대화로 전환시키는** 것이다.(35쪽, 인용자 강조)

『저항하는 독자』에서 페털리가 목표하는 '다시-보기'란 크게 '명명하기'와 '대화

기다."(인용자 강조) 백지은, 「무엇을 읽을 것인가」, 『파란』 제7호, 파란, 2017, 476쪽.

3 조연정, 「문학의 미래보다 현실의 우리를-문학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하여」, 『문장웹진』, 2017.08., https://munjang.or.kr/board.es?mid=a20104000000&bid=0004&list_no=2403&act=view&ord=B&nPage=1&c_type=A&c_page=

4 백지은, 「텍스트를 읽는 것과 삶을 읽는 것은 다르지 않다」, 『문학과사회』 제122호, 문학과지성사, 2018, 18쪽.

하기'로 나뉘며, 각각 '텍스트에 은폐된 기획을 가시화하기'와 '텍스트에 잠재된 젠더 (무)의식[5] 읽어내기'로 의미화해 볼 수 있을 듯하다. 먼저 전자의 경우 주로 1장의 「모반」과 2장의 『무기여 잘 있거라』에 대한 분석에서 시도되는데, 이는 두 소설이 "위장(disguise)의 은유"(98, 124쪽)를 내용 및 형식의 측면에서 확장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들춰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페털리는 「모반」이 마치 '자연을 초월하려는 인간의 열정이 초래한 불행'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해석되곤 하지만, 사실상 에일머를 추동하는 힘은 조지아나의 왼쪽 뺨의 반점을 제거함으로써 아내가 더 완벽해지기를 바라는 환상적 욕망이 아니라, 여성을 단지 '몸'으로만 타자화하며 조지아나의 성 그 자체를 적대시하는 혐오감이라고 지적한다.(79-85쪽) 한편 후자의 경우 1장의 「에밀리에게 장미를」과 4장의 『보스턴 사람들』에 대한 분석에서 주로 시도되는데, 여기서는 작가가 행하는 것과 화자가 행하는 것의 층위를 구분할 필요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중요하게 제시된다. 대표적으로 페털리는 『보스턴 사람들』이 비록 '구애하는 남성에게 굴복하는 여성'이라는 관습적 패턴과 그렇게 운명 지어진 여성의 무력한 처지를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재를 다루는 "어조"와 "태도"로부터 가부장제적 숙명론을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 작가의 급진적 감각을 짚어내며, 실제로 "그가 이를 의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페미니즘적 요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301-305쪽)

이때 페털리의 위와 같은 사유의 전개는 그가 자신의 저서에서 인용하기도 한 일레인 쇼월터와 케이트 밀렛의 논지와 견주어 읽었을 때 보다 선명하게 파악되는 지점이 있다. 첫째로 '페미니즘 비평(feminist critique)'과 '여성비평(gynocritics)'를 구분하는 쇼월터는 문학 텍스트 이면에 자리하는 이데올로기를 '의심하는' 해석학은 남성 작가의 작품에만 적용하고, 여성이 쓴 작품에 대해서는 그저 경청의 태도를 견지하며 '복원'과 '발굴'을 통한 여성문화의 정전 창조에 집

5 해당 표현은 김미현이 "아무리 작가가 남성 중심적인 문학을 의도했더라도 실제 작품에서는 작가가 의도하지 못했던 젠더 의식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형적인 남성성의 틈새에서도 존재하는 균열을 찾고자 한 글에서 사용한 단어이다. 김미현, 「젠더(무)의식의 역설—황석영의 초기 소설을 중심으로」, 『젠더 프리즘』, 민음사, 2008, 216, 237쪽.

중하는데, 이는 이중적 잣대라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점에서 토릴 모이에 의해 비판된다.[6] 이와 관련해 페털리 또한 앞서 나름의 척도에 따라 배치한 작품들 중 노골적으로 성차별적인 전반부의 텍스트에서는 비교적 '고발'에 몰두하고, 후반부의 암묵적으로나마 페미니즘적인 텍스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의미 생성'에 몰두한다는 점에서 이분법적으로 보일 여지도 있으나, 그럼에도 책 전반에 걸쳐 이른바 비판적 '폭로'와 세심한 '경청'을 같은 작품 내에서 동시에 전개하고 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페털리는 1970-80년대 페미니스트 비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생산한 텍스트에 초점을 두기보다 미국 문학의 정전으로 간주되는 남성 작가의 텍스트를 거슬러 읽는 데 관심을 가졌으며, 저자(텍스트)의 지배적 권위를 거부하고 독자의 행위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케이트 밀렛을 계승한다. 다만 토릴 모이가 지적하듯 밀렛이 오로지 '가부장적 억압'이라는 단선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오히려 여성을 반항 의식 없이 억압당하기만 하는 수동적 희생양으로 고착시키는 흑백 논리의 한계를 가진다면, 페털리의 경우 다소 단정적인 대립 구도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을 띠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텍스트에 나타난 "뉘앙스, 불일치, 애매성"을 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갈라진다.[7]

"이데올로기를 균열, 불일치, 일탈로 특징 지워지는 모순적 구조물로 파악할 때에라야 비로소 페미니즘은 어떤 냉혹한 이데올로기의 압력도 그 내부에 균열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 줄 수 있게 된다"[8]는 사실은 『저항하는 독자』의 5장 『미국의 꿈』에 대한 페털리의 분석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페털리는 책의 서론에서 "복잡성의 증가와 의식의 증가, '페미니스트'적 공감과 이해의 증가라는 척도"(40쪽)를 기준으로 분석 대상 작품들의 순서를 배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노골적이고 헌신적인 남성우월주의자"(312쪽)인 노먼 메일러의 해당 소설을 가장 끝부분에 위치시켰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그러니까 페털리는 성차별주의의 논지를 충실히 따르는 작품이 역설적으로 그 대립 명제를 "의도치 않게 방대하게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도될 수 있음을, 그리하

6 토릴 모이, 임옥희·이명호·정경심 역,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1994, 87-90쪽.
7 위의 책, 30-35쪽.
8 위의 책, 31쪽.

여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페미니스트적’”인 메시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40, 312-313쪽) 그리고 이처럼 가부장제의 절정에 있는 텍스트로부터도 그 내부에 존재하는 균열로 인해 페미니즘적 (무)의식이 발견 및 창조된다는 점은 결국 쓰인 텍스트를 넘어 독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이며 그것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의 문제에 방점을 두는 페털리의 사유를 다시금 상기시킨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꿈』을 쓴 메일러는 ‘여성의 권력과 남성의 무력함’이라는 환상을 만들어 냄으로써 현실을 위장하고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남성의 권력을 영속화하고자 한다. 특히 이는 “여성을 ‘심령적’(psychic) 존재로 보는”(336쪽) 생물학적 신비주의 신화에 기반하여 “공포에 사로잡힌 포위된 남성이 마녀 같고 공격적인(witchy, bitchy) 여성의 유독한 영향력에 맞서 싸우는”(327쪽) 구도로 묘사되는데,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증오와 공격은 정당화된다. 때문에 소설 속 여성 인물 체리는 남성 주인공 로잭을 향해 “자신에게는 마녀가 되고 싶은 욕망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357쪽)하며, 이때 로잭이 체리에게 읊어주는 시의 내용은 이러하다. “마녀에겐 지혜가 없다고, 약한 마법사가 말했다. … 훌라, 훌라, 마녀들이 말했다.” 다만 이 시의 구절은 5장의 맨 끝부분에 이르러 페털리에 의해 한 번 더 반복되는데,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페털리는 우선 “마녀에겐 지혜가 없다고, 약한 마법사가 말했다”는 문장과 “훌라, 훌라”라는 마녀들의 말을 따로 떼어낸다. 그리고 앞 문장에 대해 이는 어디까지나 ‘허위’에 불과한 ‘상상적 논리’이며, “남성에 의한 여성 권력 탈취”라는 문명의 역사를 수 세기에 걸쳐 “절도”해 온 근본적 범죄 행위라고 명명한다.(365쪽) 곧이어 “훌라, 훌라”라는 마녀들의 목소리가 다시금 덧붙을 때, 이는 로잭의 입을 통해 발화되었을 때와는 분명히 ‘다른’ 의미로 역전된다. 전자가 ‘강한 여성과 무력한 남성’의 신화에 동의하는 의미의 응답이었다면, 후자에서는 로잭의 상상적 베일이 벗겨지고 위장의 은유 뒤에 가려져 있던 마녀 그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로써 페털리는 ‘다시-보기’를 수행한다. 『미국의 꿈』이 반영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명명함으로써 “다른 현실과 다른 시각에 목소리를 부여”(15쪽)하고, 비로소 『미국의 꿈』이 가진 폐쇄적 구조를 ‘대화’로 열어젖힌다.

3 대화로의 개방과 시의적 창조성

최근 한국문학장의 독자 논의를 살펴보면, "문학을 읽는 법"이라는 주제를 내건 『릿터』 59호에서 백지은은 '독법'을 둘러싼 문학 이론의 지난 흐름을 짚으며, 오늘날 재구축되는 읽기의 감각을 전망한다. 비판 중심의 '의심의 해석학' 이후 생겨난 '포스트크리틱' 계열의 비평에 주목하며 백지은은 이브 세지윅의 '회복적 읽기' 개념에서부터 브뤼노 라투르와 리타 펠스키의 논의를 경유해 문학의 독법이 '해석'이 아닌 '체험'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밝힌다.[9] 즉 더 이상 텍스트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를 의심·폭로하며 비판·해체하는 노동보다는 "독자의 취향과 감응의 방식"과 그것을 조건 짓는 "사회적 분위기와 감정 구조"에 주목하는 쪽으로 관심이 옮겨갔다는 것인데, 백지은이 언급하듯 근래 베스트셀러 문화를 비롯한 출판 시장과 소셜미디어 기반의 소비 구조, 온라인 서점 별점 및 리뷰와 같은 독자 데이터 등이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점차 포함되고 있는 특징들이 이를 방증한다.[10] 일례로 SNS 'X'(구 트위터)에서 관찰되는 독자 반응을 중심으로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베스트셀러 현상을 주도한 페미니스트 독자 행위성을 연구[11]하거나,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을 둘러싸고 '왓챠피디아'나 '알라딘' 등 리뷰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독자 발화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12] 또한 제출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양귀자의 『모순』이나 최진영의 『구의 증명』, 정대건의 『급류』 등이 '역주행'한 현상들을 떠올려 본다면, 어느 때보다도 독자 집단의 영향력이 강해진 현시점과 '독자'의 위치성에 대해 치열하게 사유한 주디스

9 백지은, 「존재에서 사건으로—쓰기와 읽기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문학」, 『릿터』 제59호, 민음사, 2026, 46-48쪽. 해당 글과 더불어 '텍스트'와 '독자'의 자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유를 전개해 온 비평적 작업물로서 백지은의 『독자 시점』(민음사, 2013) 역시 주디스 페털리의 독자 논의를 따라가는 데 있어 유의미한 참조점이 된다.

10 위의 글, 47쪽.

11 조하린·연남경, 「'양귀자 현상'을 둘러싼 페미니스트 독자 행위성 연구—『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64호, 이화어문학회, 2024.

12 박선영·최서진·전성규, 「'젊은작가상' 15년 데이터 기반 한국문학의 디지털인문학적 진단—비평 기능의 전이와 확산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제67호, 반교어문학회, 2024.

페털리의 저서는 어쩌면 맞물려 있다.

그러나 『82년생 김지영』 열풍이 가리키듯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페미니스트 인식론을 바탕으로 젠더화된 읽기를 하는 독자들"이 출현했으며, '저항하는 독자'로서 이들은 "책 읽기를 통해 연대"함으로써 독서 행위를 곧 여성운동의 방식으로 체화했고[13], 그로부터도 이미 10여 년을 지나온 바 있다. 나아가 위에 소개한 백지은의 글은 이제 쓰기와 읽기, 텍스트와 독자를 모두 "연결된 과정" 속 하나의 "매개물"로 상정하며, 인간과 사물, 기술과 매체가 "함께 만드는 분산된 사건"이자 "텍스트에 휘말려 버리는" 행위로서 '독서'를 감각하자고 주장한다.[14] 꾸준히 전개되어 온 한국문학장의 독자 논의는 이러한 지점에 서 있다. 그 흐름 위에서 생각한다면 1981년 출간되어 2026년 번역된 페털리의 『저항하는 독자』, 정전화된 문학 속에서 남성의 정신을 이식받는 여성 독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책은 조금 늦게 우리 앞에 도착한 듯 보이기도 한다. 더욱이 초창기 페미니스트 비평가로서 페털리가 수행하는 작업은 사실상 '의심의 해석학'에 가깝다.

다만 페털리의 '저항하는 독자'상이 무엇보다 외부를 향해 열리는 '개방성'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페털리가 '다시-보기'를 통해 목표하는 바는 그저 텍스트에 은폐된 질서를 질문하고 폭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으며, 핵심은 오히려 남성적 텍스트로부터 일방적으로 동일시를 강요받는 '폐쇄적' 체계를 깨뜨리고, 여성 독자가 '다른' 의식을 가지고 문학을 읽음으로써 '대화'라는 상호적 관계로 열어 나가는 데 있다. 문학이 반영하는 현실을 정확히 명명하여 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하려는 이 행위는 변화로의 창조성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페털리는 책의 서문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며 계속해서 자기변신을 거듭하는 현상"이자 "성문화(成文化)되거나 단선적으로 정의되는 것, 성급하게 한계가 설정되는 것에 저항"하는 것으로서 '페미니즘 비평'을 정의하며, 자신의 논의 역시 "페미니스트 비평의 형식과 기능에 대한 최종적인 진술

13 허윤, 「로맨스 대신 페미니즘을!—'김지영 현상'과 '읽는 여성'의 욕망」, 『문학과사회』 제122호, 문학과지성사, 2018, 52-54쪽.

14 백지은(2026), 앞의 글, 48-49쪽.

이 결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8쪽) 계속해서 '다시 쓰일' 가능성을 열어 두는 태도, 특히나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으로부터 사유를 출발시키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페털리의 독자론은 그 자체로 우리가 발 디딘 현실에 맞춤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이해된다. 이에 더해 최근 한국에서 역주행을 일으키며 '독자 파워'를 체감케 한 소설을 읽고 독자들이 맞닥뜨리는 공통된 감상이 "30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성혐오적인 상황이 별로 달라진 것 없다는 한탄"[15]이라면, 미국 문학의 시작점에 있는 「립 밴 윙클」과 150년 후 발표된 『미국의 꿈』은 "분명 강도(强度)만 심화되었을 뿐, **정확히 같은 이야기**"(40쪽)라고 평가하면서도 두 이야기로부터 서로 '다른' 것을 읽어내는 페털리의 비평으로부터 우리는 분명 어떤 참조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광기의 명명과 마녀들의 관계 맺기: 『마녀의 독서, 광녀의 춤』

한편 페털리의 논의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독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적 남성 주체화'에 천착함으로써 여성 독자가 위치한 모순적·분열적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점이다. 페털리에 따르면 "모든 면에서 남성과 동일시하도록 강요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괴물스러운" 자아상을 갖는다.(12쪽) 다른 말로 "지적으로는 남성이면서 성적으로는 여성인 존재"(34쪽)인 '남성 주체화'된 여성이 겪는 추방과 고립, 상실이란 곧 우리 사회에서 '마녀' 내지 '광녀'가 만들어지는 조건에 다름 아니다. 이때 어떻게 자신의 '광기'에 이름 붙이고 그와 관계 맺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주목할 만한 근간으로 『마녀의 독서, 광녀의 춤』[16]이 있다. 여성 평론가들의 글 20편으로 엮인 이 책은 페털리가 요청한 '페미니스트 비평가-저항하는 독자'로서의 면면들을 기록한다. 무엇보다 해당 앤솔러지는 '미친년'을 탄생시키는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을 단지 병렬할 뿐 아니라 여성들 안에서도 일어나는 갈등과 적대에 관해 파고들고, 나아가 책 내부에서 또한 각각의 글이 내놓는 서로 다른 시각들이 겹쳐지

15 조하린·연남경, 앞의 글, 128쪽.
16 김경연 외 19인, 『마녀의 독서, 광녀의 춤—여자의 내장에 대해 말하기』, 오월의봄, 2026.

며 그 자체로 부글거리는 정동적 대화의 장을 이룬다.

그중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여러 글에서 공통적으로 '명명하기'와 '이야기하기'에 대한 필요성을 진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정은경은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의 저작을 검토하며, 정상성으로 분류되지 않아 "이름을 붙이지 못"한 모든 것들이 '히스테리'로 불리게 된 역사를 짚는다. 박다솜은 '별거 아닌 일로 너무 예민하게 구는' 이가 곧 집안의 '마녀'가 되는 작금의 상황과 관련해, 이를테면 '고부갈등'을 '시가폭력'이라는 "제대로 된 명칭"으로 "올바르게 명명"함으로써 미시적 폭력을 가시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서영인은 '아버지를 죽이는 딸'들의 욕망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 나아가 반복해서 악령이 되고 말았던 징벌의 서사가 이제는 '다른 클리셰'를 만들어 내기 위해 "좀 더 많은 그녀들의 이야기"를 요청한다. 김경연은 리베카 솔닛의 제언을 따라, '말'을 독점하며 침묵을 강제해 온 가부장제에 맞서 자신의 이야기를 "발설"하는 마녀들이 가진 반란의 힘에 주목한다.

또한 '미친년'을 출현하게끔 하는 구조를 문제 삼는 시각 역시 부각된다. 소영현은 '미쳤다는 것'을 '젠더'와 결부 짓는 가부장제의 망상을 환기하며, "미친년을 타자로 낙인찍는" 바로 그 "도구를 움켜쥘" 수 있는 소설적 재현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전승민은 '나는 미친년이 싫다'고 말하는 '미친년'의 존재, 즉 억압하는 "'저들'이야말로 정말로 미쳤음을 그리고 그들 자신은 미치지 않았음을 폭로하기 위해 기꺼이 미친년의 자리에 앉는" 이들의 전복성에 천착한다. 한편 그렇게 '마녀'와 '광녀'를 규정하는 사회의 조건 속에서 심지어는 여성들 간에도 발생하는 낙인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포착하는 논의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황유지의 경우 '잘난' 혹은 '튀는' 여성을 손쉽게 축출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남성 사회의 수사는 결국 이를 "학습한 여성이 여성을 쉽게 '미친년'으로 정의하게끔 한다"고 지적하고, 성현아의 경우 "마녀사냥이 지속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여성을 고발하는 여성들"에 관한 사유를 전개해 나간다.

그렇다면 이 '광기'를 가지고 타자와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에서, 성현아는 "언제든 마녀로 지목당할 공포"로 인해 체득한 여성들의 예민함과 기민함에 기반해 "내면으로 삭인 개개인의 체험을 다 꺼내놓지 않고도"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감각, 즉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피 흘린다

는 속성만으로도 자매가 될 수 있다는 확신"에 대해 말한다. 이렇듯 성현아가 확장적 의미의 새로운 '혈연' 개념을 제시하며 무조건적 연대의 양상을 확인했다면, 지젝의 이웃 되기를 참조해 전청림은 "지하에 잠복된 개인의 괴물성을 경유"하는 관계 맺기, 다시 말해 "필터와 보호막 없이, 서로를 가로막는 장벽 없이 그대로 부딪쳐버리는 관계" 만들기를 지향한다. 이처럼 마녀 혹은 광녀로서의 '관계 맺기'를 둘러싼 두 글은 멀리 있는 듯하면서도, 매달 생리혈을 흘리거나 죽임당해 피를 쏟는 끈적함의 감각을(성현아), 피로 젖은 팬티에서 자본의 구조까지가 뒤엉킨 '더러운' 기형종의 형상을(전청림) 통과해 서로 만난다. 이밖에도 실비아 페데리치의 저서를 인용하며 출발하는 여러 글들, 또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으며 곳곳의 '마녀'와 '광녀' 형상을 발견해 내는 작업들은, 주디스 페털리가 "다른 여성들의 업적에 빚지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한"(12쪽) 방대한 인용으로 『저항하는 독자』의 시작점을 알렸듯, 각자의 위치에서 수많은 '선배 여성'들을 호명하고 기억한다. 그 조각들을 더듬어 따라 읽음으로써 관계 맺을 차례다.